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기경력자 활용에 대한 고찰

김성국* · 정재용**

*, **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A Review of Seaman's Recruit system in the Japan Maritime Self Defense Force

Sungkuk KIM* · Jaeyong Jeong**

*, ** Divis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핵심용어 : 선원 교육, 해기사, 해양력, 승선근무예비역, 노동시장

Key Words : Seafarer education, Nautical officer, Sea Power, Onboard ship reserve service, Labor market

1. 개요 및 연구목적

한국의 선원 고용시스템의 주요 근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방위력 확보자원 수요부족에 따라 전반적인 병역자원 활용검토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사례를 확인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발전적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해군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의의

우리나라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근원은 해군예비원령(대통령령 제1395호, 1958.10.7., 제정)이 법률적 시작으로 기록된다. 해방이후 일본의 제도를 많이 활용하였던 우리나라는 상선선원 특히 해기사(상선사관)의 교육시스템을 일본의 인프라를 대부분 활용하였고 미국에 의해 유지되었다. 특히 법률적 규정이 존재하기 전부터 일본과 미국식 상선사관교육과 같이 군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육수준은 해군사관학교 생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해군예비원령시행규칙(국방부령 제37호, 시행1959.3.1.)의 부칙 제3조에서는 학교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군사교육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교육시스템의 영향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일본은 1884년부터 海軍予備員제도를 운영하였는데 1859년부터 민간에 근무중인 해기사와 선원을 해군소속으로 편제하여 활용하는 해군예비원(Royal Naval Reserve)제도를 모방하였다. 우수한 선원의 확보는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수한 항해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확보는 지속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해군의 필요인력을 해군 외의 민간 상선학교에서 채용하였다.

상선학교를 통해 해기사를 양성하던 일본에서는 태평양전쟁 시에는 사망한 해군장교 중에서 예비원의 비율이 무려 83%에 달하고 있을 만큼 절대적인 인력자원을 민간에서 공급하였다.

태평양전쟁시 일본 해군장교 사망자

	전사자	현역전사	예비역전사	예비역비율
少佐	1	1	0	0
大尉	49	45	4	8.16%
中尉	313	95	217	69.33%
少尉	482	6	476	98.76%
합계	845	147	697	82.49%

3. 일본해상자위대의 민간선원 채용 시스템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역과 예비역으로 편성되며 자위관이 되기 위해서는 학령교육에 맞추어 방위대학교(18~23세) 및 간부후보생학교(20~28세)를 진학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기술인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해기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인 技術海上幹部(38세미만)를 중도채용하고 있다. 또한 자위대에 소속되지만 유사시 소집을 위해 매년 훈련에만 참가하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예비역인 予備自衛官을 1954년 부터 운영중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시에 예비자위관에게 발효된 유사시 소집령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2016년부터 해기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상자위대에 海上自衛隊予備自衛官補를 채용하고 있다.

4. 결론

해군에서 항해능력의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우수한 선원을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경력있는 해기사를 채용하는 제도를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승선근무예비역 활용은 해군력 강화에 직결되기에 안정적 공급과 활용에 대한 발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 First Author : conrad@mmu.ac.kr, +82-061-240-7150

† Corresponding Author : jyjong@mmu.ac.kr, +82-240-7175